

근원적 부분의 정보화 채색

요즘 서점에 가면 FX형 소설이나 수필집을 종종 볼 수 있다. FX형 수필의 내용은 주제부터가 기존의 수필과는 좀 다르다. 그러나 과거의 공상과학소설이 현재의 생활로 실현되고 있듯이 멀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수필은 신기한 일들을 상상해내서 쓴 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붓가는 대로 쓴 글이 될 것이다.

요즘 출판업계엔 미래지향적 출판방식인 DTP(Desk Top Publishing) 선풍이 일고 있다. 쉽게 말해서 작가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를 편리한 송신방법을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편집실로 송고하고, 원고를 받은 편집자는 책상위에서 출판 전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편집한뒤, 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하여 교정까지 본다.

원고를 교정할 때에도 수작업으로 고쳐야 하는 원시적 수고는 고성능 컴퓨터 화면상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완성된 원고를 다시 출력소로 보내면 출력소에서는 프린트 명령후 불과 몇분 뒤에 필름으로 출력된 원고를 얻을 수가 있다. 이 필름을 인쇄소로 넘기기만 하면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원고작성에서 송수신편집 및 교정을 마친뒤 출력까지 소요되는 시간경비 등은 작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기존방식의 1/3정도 든다고 볼 수 있다.

점진적으로 경인쇄분야 종사자들이 전자출판에 기울이는



金榮植

(주)엘렉스컴퓨터 사장

관심이 고조되고 실질적으로 충무로 바닥도 서서히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종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충무로의 열악한 출판인쇄환경이 먼저 개선되지 않고는 정보화시대란 특정분야 이외에서는 요원한 꿈이 아닐까.

하나의 현상이 문화로 정착하거나 민족의 생활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의 채색이 필요하다. 정보화역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인 동시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생활에 얼마나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는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